

전문가들 우려속 코로나19 빚장 푸는 미국

조지아·오클라호마, 영업허용 테네시·콜로라도, 규제 완화 공화당 주지사들 경제 재가동

CNN은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모두 워싱턴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IHME)의 연구 모델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5월 1일 이전에는 어떤 주도 경제 활동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연구 결과는 최근 내놨다.

반면 뉴욕주처럼 코로나19가 가장 심하게 할린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의 조짐도 없는 상태다. 경제 재개의 속도는 주지사의 소속 정당을 따라 갈리는 모양새다. 대체로 공화당 주지사들이 재가동을 서두르는 가운데 민주당 주지사들은 천천히 움직

이고 있다. 다만 조지 재가동에 나선 주지사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체가 문 열도록 하는 등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막힐까 바 경제하고 있다.

WP는 그러나 가장 주저하는 경제활동 재개 조치조차도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대도시 시장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때에는 또 감염병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을 문 닫는 일은 어렵지만 '모두가 집에 머물라'는 간단한 지침을 따르던 것보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주가 수천

명의 목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각각 즉흥적인 실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경제 재가동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컬럼비아대학 전염병학자 제프리 새먼은 "불행하게도 선택은 아주 간단하다"며 "이런 감염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WP는 경제 재가동이 거의 확실시 더 많은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뉴욕 장례식장의 준비한 관 미국 뉴욕 시 퀸스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이 안치된 관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30> 동관

동관(童貫, 1054~1126)의 자는 도부(道夫)로 개봉 출신이다. 북송의 휘종때 환관으로 정치에 주물렀다. 북송 멸망을 초래한 대표적 간신배다.

어려서 생식기가 거세되어 환관 이현 밑에서 양육되어 황궁의 말단 급사가 되었다. 안광이 예리하고 주객적인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환관 집단에서 빠르게 승진했다. 휘종은 형인 철종이 즉자 운종계 황제가 된 인물로 정치 보다는 시시 등에 관심과 재주가 많은 풍류천재였다. 강남의 진귀한 물건에 집착해 황주에 예술품 수집을 위해 명금국(明金局)을 설치했는데 동관이 책임을 맡았다. 황주에 은둔하며 기회를 엿본 채경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서화와 골동품에 뛰어난 채경과 동관은

연희의 생일 축하사절로 요의 수도 중경을 방문하고 오는 길에 금나라와 제후했다. 요나라를 섬멸해 잃어버린 연운 16주 고토를 회복할 계획을 세웠다. 개부의동삼사 겸 추밀원사가 되어 관료들을 맡겨 부려 조정대신의 원성이 자자했다.

1120년 방납의 난이 일어났다. 절강의 정계에서 시작된 민란으로 사실상 북송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북송은 궁정의 물자를 제조하는 조작국을 황주 등에 설치했는데 강제 징발로 인해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방납은 황주를 원령하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등 기세를 떨쳤다. 휘종은 동관에게 진금국을 이끌도록 해 황주를 탈환하고 방납을 생포했다. 그러나 북송 재정을 엿본 채경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서화와 골동품에 뛰어난 채경과 동관은

휘종때 정치 주무른 환관...북송 망친 육적

의기투합했다. 동관은 채경을 강력히 휘종에게 천거했다. 본인의 사치를 뒷받쳐 줄 채경의 재주를 높이 사 재상으로 기용했다. 채경과 동관은 조정의 권력을 장악했고 북송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채경의 아들 채유, 왕보 등과 함께 황제의 측근으로 세력을 형성했다. 환관 양사성과 이인, 황주의 주연을 포함해 북송을 망친 육적(六賊)으로 분류된다. 휘종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추구했다. 정치는 늘 뒷전이였다. 동관은 최측근으로서 황제의 뜻에 부합해 왕조의 재부를 고갈시켰다. 당시 유행하던 민요에 "동을 깨뜨리고 채를 버리면 세상이 나아진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동은 동관을, 채는 채경을 의미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분노가 1120년 방납의 난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수도 개봉의 호화로운 일찍이 전례가 없었다. 채경, 동관, 양사성 등의 가렴주구로 수도는 번성하고 민초의 삶은 비참해 망국 왕조의 전형적 모습을 보였다. 재상 채경의 집에 요리사만 수십명 있었는데 만두를 주로 만드는 여자에게 만두 만드는 법을 묻자 "저는 몇 년간 파만 만지고 있어서 만두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고 답하였다 고 한다. 북송의 사치와 환락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것이다.

1111년 요나라 황제인 천조제 아을

어진 셈이다. 난을 진압한 후 금과 약조한대로 연경을 공격했지만 노구교에서 패배했다. 요나라의 광약사, 고봉이 땅을 바치고 항복하자 대군을 동원해 연경을 재차 공격했지만 요의 반격으로 패배했다. 금의 태종은 송을 불신해 연경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연운 16주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북송 왕조는 도피중인 천조제를 몰래 받아들였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금은 천조제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천조제가 도피 중 1125년 금나라에 붙잡혔고 요와 북송의 비밀협약 문서가 발견되었다. 격노한 금은 수도 개봉을 공격했다.

동관은 왕보, 채유와 함께 요와 금을 상대로 한 북방 작전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알뜰한 송수료금의 신뢰를 잃은 것이 북송의 괴멸을 가져왔다. 유생들은 채경, 동관 등을 육적으로 매도해 모두 주살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1126년 휘종이 장남에게 왕위를 넘기고 하남성 상구로 피신했다. 즉위한 흥종은 동관에게 개봉유수직을 내렸는데 받지 않고 휘종과 함께 피신했다. 송과 영토 할양의 협약을 맺은 후 금이 철수하자 휘종과 함께 개봉으로 돌아왔지만 여론의 못매를 맞고 광동성 유주로 유배되었다. 10가지 대죄를 이유로 처형되었다. 그의 머리는 개봉 한복판에 효수되었다.

"김정은 없는 평양 뒤승승...불안한 주민들 사재기 극성"

워싱턴포스트 보도

"건강 이상설 두고 설왕설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방과 건강 상태를 놓고 며칠째 온갖 설들이 난무한 가운데 평양에서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뒤승승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작성자는 오랫동안 북한을 취재해온 애나 파이필드 WP 베이징 지국장으로, 그는 그간 북한 지도자의 사망설이 가짜로 밝혀진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던 것을 돌아보며 북한이 발표하거나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 떠도는 루머에서는 김 위원장이 심장과 관련해 어떤 수술을 받았다는 점만큼은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 어느 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 보인다고 밝혔다.

파이필드는 김 위원장이 평양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정권을 받드는 엘리트들이 모여사는 평양에서 지난 8년여 통치해온 김 위원장이 현재 가망이 없는 상태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으며,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양 주민들이 세계부터 쌀, 술,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사재기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수입품 위주로 사들이다가 며칠 전부터는 생선 통조림과 담배 등 자국 제품도 사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평양에서는 헬리콥터들이 저공비행 중이며, 북한 내 열차와 중국 국경 밖 열차 운행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뭔가 잘못됐다"는 추측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집권 9년째를 맞은 그가 어느 정도 자신감 속에서 자신만의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파이필드는 전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러시아 등 관련국의 지도자 누구보다 오랜 기간 집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 백두혈통'이 3대째 다스려온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사망했을 경우 그 파장은 가능조차 하기 어렵다고 파이필드는 지적했다.

특히나 연로한 상태에서 후계자를 지정해놓고 사망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젊은 나이의 김 위원장이 사망한다면 후계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이필드는 확실한 남자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유일하게 확실한 후보이지만 젊은 여성이라는 점이 약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여정이 어떻게 북한의 지도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어떻게 지도자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 다른 누군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